

무항생제 사육의 노하우를 찾아서!

#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를 가다 - 갈현농장



김재민 기자  
축산경제신문

이 길이 맞긴 한데... 어렵긴 하다  
사육밀도 조절 등  
환경 개선 통한 생산성 유지에 초점

충남 서산에서 갈현농장이라는 육계농장을 운영 중인 이동용 대표는 2년 전인 2008년 30여년간 고수해온 육계 관행사육을 접고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항생제 육계 사육으로 과감히 전환했다.

무항생제 사육의 노하우를 찾아서!

##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를 가다 - 갈현농장



이동용 사장

관행 사육에 비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우려가 높았지만 우리 육계산업이 개방이라는 파고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이지 못할 경우 수입닭고기와의 차별화도 어려워지고 점점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축산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현재 40여개의 농장이 분포하고 있는 서산 지역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은 이동용 대표의 갈현농장이 유일하다.

### 사육밀도 조절, 환경 개선이 최선

8만수 규모의 갈현농장은 실패도 여러 번 봤다.

병아리 때부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다보니 작은 질병에도 큰 피해를 입기가 일쑤인데 최근에는 각종 신종 질병이 육계농장은 물론 산란계, 종계 할 것 없이 만연하면서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행사육 때보다 폐사율이 2배로 증가했는데 그러다 보니 약값도 정확히 2배가 늘었다.”

“최근 병아리가 부족하면서 부화장에서의 스크린이 느슨해졌는지 불량병아리도 부쩍 늘은 것 같다.”

무항생제 축산을 하고 있지만 이동용 사장도 다른 육계 농가와 마찬가지로 질병 문제와 병아리의 품질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이동용 사장은 육계는 한우나 낙농, 돼지와 달리 질병에 매우 취약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할 경우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무항생제 축산이 농가들의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갈현농장은 이러한 폐사 증가 등 어려움을 타개 하기 위해 사육수수 조절에 나섰다.

계열주체 쪽에서 제시한 사육밀도는 3.3㎡

##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를 가다 - 갈현농장



농장 입구



계사 내부

에 무창계사는 70수, 유창계사의 경우 50수를 키우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갈현농장은 무창계사로 사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3.3㎡에 65수 정도만을 사육해 사육밀도를 줄여 닭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썼다.

특히 항생제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약품이 항생제와 같은 치료가 아닌 예방목적의 면역증강물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사육밀도를 줄여주는 것이 더 키우고 약을 더 쓰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 사장은 항생제 등을 사용하는 관행 닭 사육 때보다 정확히 약품비가 2배든다며 폐사도 2배, 비용도 2배이기 때문에 닭 사육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항생제 대체물질도 수의사 등과 상의해 가며

실험하고 있고 백신 등도 접종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수입을 고려할 때 사육밀도 조절과 환경 개선이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길이라고 이 사장은 밝혔다.

### 가야만 하는 무항생제 사육의 길

무항생제 닭고기를 키우면서 그만 돌까하는 유희도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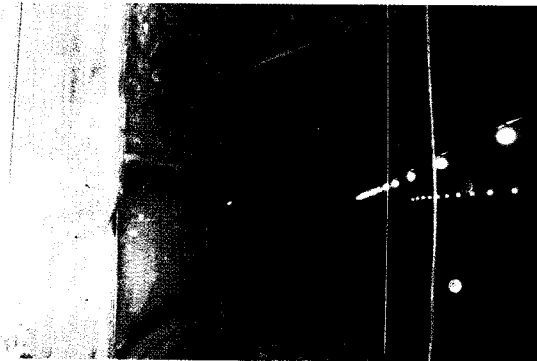
무항생제 닭을 사육할 경우 수당 수수료는 관행 닭 생산 때보다 계열주체로부터 20원을 더 받고 있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생산성 저하와 약품비용 등을 감안할 때 관행사육에 비해 현재로는 손해다.

최근 출하 때도 폐사가 8% 가까이 나면서 병아리 값을 일부 변상하기도 했다고 술회했다.

대한양계협회 서산육계지부 지부장을 역임

무항생제 사육의 노하우를 찾아서!

##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를 가다 - 갈현농장



계사내부 단열모습

하고 있는 이 사장은 월례회 등 농가들과 회합이 있을 때마다 농가들로부터 왜 손해를 보라며 무항생제 닭을 키우고 있냐는 편지를 듣기 일쑤다.

그럴 때마다 앞으로 우리 육계산업이 살 길은 무항생제 사육 등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통해 안정성 극대화하고 수입닭고기와 차별화하는 것 뿐이라 역설하지만 손해를 보라며 닭을 키우는 현실에선 속이 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HACCP 인증과 무항생제 사육 인증을 받아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가도 있기는 하지만 갈현농장은 올 연말쯤이나 HACCP 인증을 계획 중이다.

이 사장은 최근 종계장들의 생산성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사료도 겨울을 지나며 항만 등에 야적돼 있던 옥수수 등의 사료

원료가 곰팡이 등에 심하게 오염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항생제 사육은 모험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계열주체에서 사료품질 높여줘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이동영 사장. 당장 손해는 보지만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걷고 있다’는 고집스러운 모습 속에 장인 정신 같은 닭 사육에 대한 애정도 엿보여 한편에서는 더욱 노하우가 쌓인다면 결국 또 다른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 말미 이동영 사장은 “항생제를 쓸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계열주체 쪽에서는 항생제 대체물질을 개발해 공급되는 사료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사료의 품질을 높여주고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질병의 경우 백신의 사용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날 취재에 동행한 계열주체 담당 직원도 농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항생제 대체물질에 대한 시험 사육 등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